도심부 도보관광을 통하여 본 을지로 제조업 밀집지역의 관람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 중구 도보관광 '을지유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ightseeing-Space of Euljiro Manufacturing District through Inner City Walking Tour

- Focused on Jung-gu Walking Tour 'Eulji-Uram' -

Jung, Yeon-joong **정 연 중** 정회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Zo, Hang-man **조 항 만** * 정회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공학석사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phenomenon of manufacturing district in the inner city of Euljiro District being a subject of sightseeing without losing its original functional properties. 'Eulji-Uram' is a walking tour program that links various kinds of manufacturing firms, manufacturing-related retail shops, famous local restaurant and artists studios into one single route. This phenomenon implies a radical change in perception toward industrial district from 'disqualified' area into 'subject of sightseeing'.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sightseeing-space' of the district, the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in spatial dimension. To do so, the study is composed into two stages of research. First, the study examin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walking tour program within the boundary of Central Area of Seoul. The study draw out the spatial typology of walking tour route in terms of formal dimension, sightseeing-element and urban configuration. In the second stage, the study concentrates specifically on walking tour 'Eulji-Uram', in order to analys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sightseeing route in Manufacturing District. The research method of second stage is to analys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sightseeing manufacturing district by dividing the district into urban-composing element and industry-composing element. 'Urban-composing element' focuses on the formal characteristics while 'industry-composing element' focuses on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ct. 'Urban-composing element' and 'industry-composing element' together implies overall industry-space relationship within the districts. Basing on these analysed elements,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sum up into three spatial characteristics of 'sightseeing-space'. Firstly, industry that shares similar characteristics accumulated in a specific spatial configuration, would form cluster of space that contains unique sightseeing characteristics. Secondly, array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space would create sets of transformative spatial elements. Lastly, establishment of sightseeing route reveals some of the extreme condition of the streets that serves particular industrial purpose.

Keywords: Walking Tour, Euljiro, Inner City Manufacturing Firm, Sightseeing-Space, Eulj-Uram
(도보관광, 을지로, 도심부 제조업, 관람공간, 을지유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서울 도심부 을지로 일대는 제조업과 제조업 연관 업체 밀집지역이다. 지역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제조업 연관 업체들은 밀접한 '산업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업종과 기능은 장시간 유지되어왔는데, 이 일대 도시조직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변화를 거쳐 과거의 모습과 거의 같게 유지되었다[1]. 지역의 기능적·공간적 속성은 유지되어 온 반면에, 을지로에 관한 정부 정책들과 대중들의 인식은 장기간에 걸쳐 변화해왔다. 서울이 탈산업화의 시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정책방향은 오래전부터 이 일대 제조업 관련 시설들을 '부적격'시설로 간주하고, 일부 제조업체들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적격시설에 대한 배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낙후된 과거의 산업지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zohangman@snu.ac.kr

1) 최동혁, 서울 남촌지역 가로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p.87

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도심부에서는 산업생태계, 경제적 집적 등의 이점으로 인해 제조업 생산 활동이 꾸준히 유지되거나 증가하였고, 현재까지도 도시의 제조업을 담당하는 장소로 작동하고 있다[2].

최근 서울 중구청에서는 을지로 일대의 제조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프로그램 '을지유람'을 내놓았다. '을지유람'이란 을지로 일대 여러 종류의 제조업체와 관련 도·소매 사업체, 지역의 유명한 맛집들 그리고 새로 유입된 예술가 공방을 하나의 루트로 엮어 만든 도보관광이다. 본 연구는 을지로 일대의 제조업지역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한 채 관람 및 관광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현상에 착안한다.

을지로 일대가 관람의 대상이 된 현상은 '정책 방향'과 '대중의 인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사회적 변화를 시사한다. 첫째로, 제조업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었다. '을지유람'은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관광·개발 프로그램이 아닌, 지자체에서 내놓은 공식적인 도보관광 프로그램으로, 제조업지역을 관광화함으로서 도심부에 존치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을 시사한다. 둘째는 이 지역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측면이다. 소규모 제조업지역이 본래의 기능적 차원을 넘어, 대중들에게 관람의 대상이 되는 극단적 공간소비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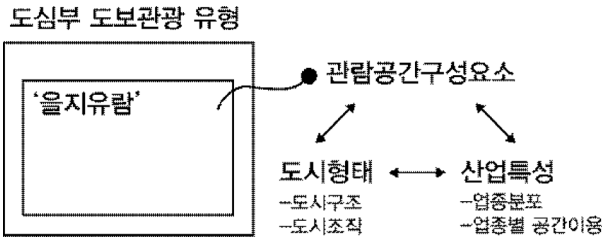
이처럼, 을지로 일대 제조업 지역의 관광상품화는, 도심부 내 '부적격'시설이 밀집한 지역이 관람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급격한 인식 변화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을지유람'에서 관람의 대상이 되는 을지로 제조업 밀집지역의 공간구성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의 관람의 대상이 되는 공간적 속성을 고찰하여, 도심부 제조업지역의 관광상품화 현상을 공간적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로 각 행정구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도보관광 프로그램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다. 여기에서 검토한 대상은 서울 도심부에서 운영 중인 지자체의 도보관광 프로그램이다. 서울 중심부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와 성북구로 한정하여, 도보관광 루트와 주변지역의 형태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앞 단계에서 수립한 분석의 틀로써 '을지유람'을 공간적인 차원에서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공간적 범위는 '을지유람'이 관통하는 제조업 밀집지역인 수표동, 입정동, 산림동 세 개의 블록으로 루트가 지나가는 가로와 인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방법으로, '을지유람'에서 관람되는 공간의 구성요소를 '도시구성요소'와 '산업구성요소'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의 개념

2. 도심에서의 도보관광

2.1 도보관광의 개념과 특성

도보관광은 일정 시간동안 특정한 구간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역사, 자연 및 생태, 문화, 예술적 장소를 둘러보고, 그 가치를 느끼고 즐기는 형태의 관광활동이라고 정의 될 수 있다.[3] 도보관광은 길을 걷는 활동이면서 주변과 연계된 자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이러한 선 중심 여행행태의 장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선 중심 여행행태의 장점

대상	장점
환경영향	길은 이미 존재함으로 새로운 탐방로 개설을 위해 대규모 개발이 필요 없음
	관광객들이 한 곳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방지됨
지역주민	대규모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이 탐방로 곳곳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저비용의 투자로 사업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음
관광객	무대화되지 않은 자연경관과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음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음

자료: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10, p.12

도보관광은 단순한 정보전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고 밀도 있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러 지자체에서 기존 도심의 역사적·문화적 요소를 도보관광 상품화하여 새로운 도시경쟁력과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4].

현재 서울시와 여러 지자체들은 자치구역 내 여러 지역을 도보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 전역의 역사적·문화적 명소를 도보관광 무료해설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와 별개로 각 구청에서도 지역구의 명소 등을 도보관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운영 중이다.대표

2) 심한별, 서울 도심부 도시형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해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p.145

3) 반정화·강미선, 서울시 도보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서울연구원, 2013, p.16

4) 서정렬, '도보관광'을 통한 원도심 문화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51호,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15, p.183

적인 사례로 중구와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한양도성을 주제로 한 도보관광 코스를 들 수 있다. 관광화를 위해 테마코스를 조성하거나 스토리텔링을 더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서울 도심의 각 구에서 운영 중인 도보관광 프로그램과 그 특징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지자체 운영 도보관광 프로그램

자치구	도보관광 프로그램명	특징
중구	광희문 달빛로드 4코스	지역의 여러 테마와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밀집 분포한 상점을 테마로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도보관광코스로 조성함
	을지유람	
	한양도성 3코스	
	장충단호국의 길	
종로구	골목길 탐방 20코스	종로구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박물관,미술관과 같은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람하는 투어도 운영중임
	한양도성 스탬프투어 4코스	
	한양도성 달빛기행	
	박물관 투어	
	종로의 이야기꾼, 전기수	
동대문구	주요관광코스 13코스	일정코스와 테마코스로 나눠 여러 구간의 코스를 조성함
	테마코스 8코스	
서대문구	안산지락길 연계 5코스	쇼핑, 축제, 공연 등 문화를 즐기는 테마거리 위주로 조성함
	서대문구 스토리북 10코스	
성북구	성북동 테마여행 5코스	정릉잣나무숲, 조선경종의 릉, 오동공원, 서울성곽 등 자연환경을 중점적으로 조성함
	걷기 좋은 산책로 8코스	
	성북100경 7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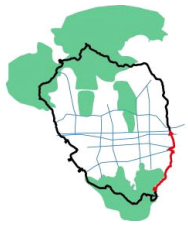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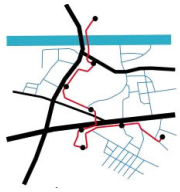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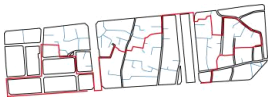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 도보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서울연구원, 2012, p.42 참조, 연구자 추가 및 재작성

2.2 도보관광의 공간적 유형

관광활동은 익숙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관광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선 자신의 일상적인 환경과 (1)형식적인(formal) 차원의 변화, (2)기능적인(functional) 차원의 변화 또는 (3)형식적인 변화와 기능적인 변화가 모두 있어야 한다(A.Gospodini, 2001). 현대인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로 관광활동의 형태가 다양화되었다. 이전에는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장소들이 '탈일상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어 관광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이영란 외 1인(2017)은 "일상생활 속에서 공유가 가능한 가로 공간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의 경관 역할"을 하게 되어 일상적인 장소에서의 관광활동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사회와 보다 밀접한 도보관광에서 해당 지역의 관람되는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도보관광은 크게 문화중심형, 자연중심형, 문화와 자연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철 외, 2010). 관람이 되는 대상과 도시적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도보관광 코스의 구성비를 분류하는 방식이 있다. 김준연 외 3인(2011)은 도보관광 코스를 역사공간, 문화공간, 휴식여가공간, 자연생태공간으로 나눠서 코스의 공간 구성비를 구하는 방식으로 도보관광 코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반정화와 강미선(2013)은 도보관광은 기본적으로 가로를 따른 '선'의 구조이므로 주요 관광시설이 '점'에 집중되기보다 '선'의 구조를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심부 도보관광의 유형을 관람공간의 공간적 형태에 따라 고정형, 지점연결형, 선형, 면적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1)물리적 형태 (2)관람요소 (3)도시와의 관계 (4)지역상황 측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3> 도심부 도보관광 프로그램의 유형

도보관광 다이어그램	공간적 유형 및 특성
	• 고정형 **(한양도성 스탬프투어)** (1) 기존에 물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루트 및 순환형를 구간화 부분적 루트화 (2) 도성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도시를 간접적으로 관람 (3) 도시와 분리되어 간접적인 관계 (4) 범서울적
	• 지점연결형 **(광희문달빛로드4코스중 1코스)** (1) 유명한 '지점'을 이어주는 루트. 지점과 지점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중요 (2) 유명한 '지점'을 주로 관람하고 주변지역을 간접적으로 관람 (3) 여러 성격의 지역을 관통 (4) 동대문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 선형 **(골목길 탐방 20코스중 1코스)** (1) 비슷한 형태의 길 중 하나의 길. 길에서 맥락적 통일성을 가짐 (2) 길 자체가 관람의 대상 (3) 지역의 비슷한 여러 가로중 대표적인 하나의 가로 구간화 (4) 한옥 등 같은 형식의 공간요소가 밀집지역
	• 면적형 **(을지유람)** (1) 특정한 지점보다 구역전체를 아우르는 형태 (2) 밀집된 소규모 제조업과 지역 식당 및 문화공간 (3) 다양한 공간조직과 저층저밀가옥 (4) 제조업 밀집지역

분석 요소: (1) 물리적 형태 (2) 관람요소 (3) 도시와의 관계 (4) 지역상황

2.3 을지유람의 도보관광 특성

구 단위에서 계획된 다른 도보관광의 경우, 특정한 주제를 갖는 반면 '을지유람'은 명확한 주제(테마)를 갖지 않는다. '을지유람'에서 관람의 대상은 소규모 필지 내 오래된 저층저밀가옥이나, 조각·위생도기·공구·조명 등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지역산업, 청년들의 새로운 문화공간, 대표적 먹거리와 맛집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5]. 즉, 을지로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을지유람'은 도심부 산업 지구로서의 역사성이 큰 만큼, 지역의 고유한 특성 자체를 주된 관람 요소로

5) 박소현, 아이러니 서울길, 다섯 이야기 1:을지로2가.3가, 월간 SPACE 통권 592호, 공간사, 2017, p.110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을지로 지역이 갖는 여러 가지 고유한 특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3. 을지로의 지역적 특성

3.1 소규모 제조업

을지로 일대는 일반적인 공업지대와 달리, 소규모의 제조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을지로에 소규모 제조업체가 밀집하는 현상은 일제강점기(1930년대)에 서울에 적용되었던 용도지역제에서부터 그 바탕을 찾아볼 수 있다. 당시의 용도지역제는 지역의 용도를 공업, 상업, 주거, 미지정의 4개로 구분하였는데, 당시의 용도지역제에서 공장은 "공업지역이 아니면 존치할 수 없는 건축물"과 "준공업지역이 아니면 존치할 수 없는 건축물"로 구분되어, 도심부에 입지하기에 '부적격'한 시설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도심부의 공장은 점차 증가했는데, 이러한 공장들은 공장이기는 하지만 용도지역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장일 경우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6]. 주거 및 상업지역이 대부분이었던 도심부에서 용도지역제의 적용을 받는 공장이란 상시 사용하는 원동기 마력수 0~15범위의 소규모 제조업장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7].

오늘날의 을지로 지역은 도시 중심부의 비싼 지가로 인해 협소한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소규모 제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규모 제조업장은 대부분 한 두 대의 기계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 두 공정에만 특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심한별, 2013).

3.2 산업생태계

을지로 일대의 제조업장은 도심부의 높은 임대료수준을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을 취급한다. 하지만 동시에 제조업장의 단위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 공정이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또한 사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몰릴 경우에 개별 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일한 생산 공정과 속도 상의 문제로 인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연속선상의 공정을 담당할 수 있는 제조업종끼리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의 협력 관계 사이에는 독특한 운송체계가 존재한다. 이 운송체계는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와 같이 개별 제조업장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물리적으로 연속된 업체들이 하나의 생산 공정을 구성하는 긴밀한 협력 체계는 을지로 일대의 특수한 지역적 특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긴밀한 협력 관계는 다른 산업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하며, 이렇게 형성된 지역 이미지는 새로운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되고, 지역의 경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3.3 도심부 산업지역으로서의 혼합적 특성

을지로의 복합적인 상황은 도심부에 지속되어온 산업지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경제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Thomas A. Hutton은 신경제이론에서 "경제적으로 재구조화된" 신경제 공간에서 생산활동이 조직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말한다.

(a) 유물로서 남은 전산업시대의 생산방식과 아직 남아있는 산업시대의 생산방식, 후기산업시대의 새로운 생산방식의 산업(정보, 문화, 창조)이 공존함으로써 단일한 생산방식으로 조직되지 않는다.

(b) 기존산업과 신산업이 협력·공존·경쟁한다.

(c) 전문화된 생산부문에서 기존의 생산기술이 조합된(hybridzed) 형태의 직업들이 존재한다.

(d) 전통적인 제조공정(manufacturing)과 서비스형(service-type) 작업이 조합된다.

(e) 공간(space)과 생산활동(industry)은 "서로를 규정하는 힘(industry-shaping power of space, space -shaping power of industry)"을 갖는다.

(f) 전통적인 생산방식은 네트워크화 되며 정보시스템을 사용한다.

(g)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은 신산업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h) 생산활동의 공간과 거주공간이 혼합(mixed-use)된다. (Thomas A. Hutton, 2009, 재인용)

4. 을지유람 관람공간 구성요소 분석

4.1 분석 요소의 설정

을지로 제조업 밀집지역이 관람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을지유람'에서 관람되는 공간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관람되는 공간의 구성요소는 도시구성요소와 산업구성요소로 나눠서 분석한다. 앞서 A.Gospodini(2001)는 관광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형태적인(Formal) 측면과 기능적인(Functional) 측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역의 형태적인 측면인 도시구성요소와 지역의 기능적 측면인 산업구성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관람공간의 구성요소를 고찰한다. 도시구성요소는 첫째, 거시적인 형태적 차원에서의 '블록형태와 가로체계', 둘째, 가로의 공

6) 심한별, op. cit., p.66

7) 각 용도지역별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은 상시 사용하는 원동기의 출력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었다. 주거: 상시 사용하는 원동기 마력수 3마력 이상의 공장 건축 금지 / 상업: 15마력 이상의 공장 건축 금지 / 공업: 50마력 이상의 공장은 공업지역에만 건축 가능 / 미지정: 15~50마력의 공장 건축을 유도할 지역(출처: 조선시가지계획령, 1934)

가로의 평균폭과 길이, 셋째, 가로에 면하는 건물의 층수, 건축연도와 건축 구조로 이뤄진다. 산업구성요소는 관람의 대상이 되는 1층부의 업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산업구성요소는 첫째, 지역의 산업 업종의 분류와 분포특성, 둘째, 가로의 업종구성, 셋째, 저층부 업종의 입면적 구성요소, 넷째, 가로를 구성하는 외적인 요소인 외부 가로 구성요소로 이뤄진다. 이를 요약한 것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 관람공간 구성요소

관람공간 구성요소	도시구성요소	블록형태 및 가로체계
		가로 평균폭 및 길이
		건물 평균층수·건축연도·구조
	산업구성요소	업종 분류 및 분포특성
		가로별 업종구성
		입면구성요소
		외부 가로 구성요소
관람공간 특성		

4.2 분석의 단위

관람공간 구성요소의 분석의 단위는 '을지유람' 관람의 동선에서 방향이 전환되는 가로로 나눠 40구간의 단위가로를 기본으로 하였다. 관람객이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단위를 한 방향의 거리라고 가정하였고, 방향이 달라질 경우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다고 간주하여 최소 단위를 산정하였다. 또한 가로 폭의 변화 또는 업종구성의 변화는 한 선분의 가로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으나 단위 가로별로는 달라진 다는 것이 본 연구의 가정이자 결과로 도출한 부분이다.

4.3 도시구성요소

(1) 블록형태 및 가로체계

<표 5> 블록 형태

블록1	블록2	블록3
		
수표동	입정동	산림동

을지로 일대의 도시조직은 간선도로인 을지로, 종로, 돈화문길, 창경궁길, 충무로, 퇴계로에 의해 세 개의 명확하게 구분된다. 블록의 내부는 자연발생적인 가로들이 과거와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수표동의 경우 토지구획정리를 거쳐 큰 필지로 구획되었고 자연발생적인 가로는 일부 남아있다. 입정동과 산림동의 경우 전통적 도시조직들이 남아있으며, 입정동은 남북 방향으로 두 개의 가로, 산림동의 경우 동서방향의 가로와 남북방향의 가로가 가로체계의 큰 틀을 구성한다.

(2) 단위가로별 평균 폭 및 길이

40구간으로 나눈 단위가로의 개별 평균 폭 및 길이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을지유람'의 관광 루트의 연장길이는 1262.9m이다. 가로의 평균 폭은 30m에서 1.3m까지로 차이가 난다. 단위가로의 평균 폭과 길이를 분석함으로써 관람되는 공간의 공간적 규모를 분석하고 공간의 전반적인 체계를 고찰한다.

(3) 단위가로별 건물유형

단위가로별 건물유형은 단위가로에 면하고 있는 건물로 대상을 제한한다. 대상 건물의 평균 층수, 건축연도와 건물구조를 분석하고 가로의 폭과 길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가로의 공간적 규모를 분석한다. 건축연도는 1930년부터 10년 단위로 1990년 이상 카테고리를 나눴다. 그 기준은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이 사용자의 의해 보수되며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벽돌구조, 블록구조, 목구조로 나눠 분석하였다.

4.4 산업구성요소

(1) '을지유람' 코스 구성 업종분류

<표 6> '을지유람' 코스 구성 업종 분류

제조업		제조업관련 도소매업	
금속 철제 가공 관련 제조업	프레스 가공	산업재료 판매업	볼트
	철판 절단		필름 철망
	용접		철물
	조각		페인트
	정밀		건재
	밀링.CNC		고무벨트
	금속		레진 등 본드류
	칠	산업도구 판매업	전동·전기 공구
	연마		전업사
	회전가공		에어공구·펌프
	주물제작		장갑 등 소모품
기타 제조업	펌프·탱크 제작·수리	맞춤 제작 및 판매업	기계 부품
	기어 제작 Gear		수제화
	봉제 Sewing		열쇠
	인쇄 Printing		케이블
	전기 Electrics		철제기구
비제조업		완제품 판매업	타일·도기
컨설팅전문업	인테리어		조명
	광고업		소방관련
기타시설			
기타 시설	스튜디오	기타 시설	식당
	세탁		가게
	택배		편의점
	종교관련		모텔
	주거		

<표 7> 도시구성요소·산업구성요소 분석종합표

	도시구성요소															산업구성요소							
	가로			건물유형												업종구성							
번호	도로명	평균폭(m)	길이(m)	평균층수	건축연도						건축구조					제조업		제조관련 도소매업				비제조업	대표 업종
					40'	50'	60'	70	80'	>90	철콘	경량	벽돌	블럭	목조	금속·철제	기타	산업재료	산업도구	맞춤제작	완제품		
BLOCK1 수표동																							
1	을지로	30.1	222	3.57		16	1		1		18							1			24		타일20, 조명4
2	수표로	14.9	48.6	3.75		3	1				2	3						1		1	3	3	
3	충무로9길	8.1	98.1	2.3		4	2	3		1	2		3	2	2		1	5			17	1	타일17
4	을지로11길	10.0	86.4	3.57		2	1	2		2	5				2		2	2			3	10	식당6
5	을지로11길	2.8	48.6	2	4	1	1	2			3				5							6	식당5
6	충무로11길	2.4	32.9	1.6	1	3	2	1			2				5				8				공구8
7	충무로11길	5.8	42.2	1.66			1	1		1	1	1	1						1			2	식당2,공구1
8	을지로13길	5.1	48.3	3.28			2	1	1	1	5								1			3	식당3,공구1
9	충무로9길	8.0	46.0	3.5		2				1	1		2					2				4	택배2
10	충무로	22.0	49.3	5			1				1											1	은행1
11	을지로	30.1	20.1																				
BLOCK2 입정동																							
12	충무로	22.0	90.5	2.16	1	1	2						3		2			4	8	2			공구8,철물2
13	충무로	3.0	31.2	1.85	3	1	1				1				4		2	3	4			2	공구4,산업재료2
14	충무로	3.0	32.9	1.16	2		2	1			1			1	3	5		1		2		2	금속4
15	충무로14길	3.3	35.6	1.28	6								2		4	7						2	밀링4,금속3
16	을지로15길	3.0	5.7	2.5	2										2	3						1	용접1,정밀1,금속1
17	을지로15길	1.6	15.0	2			1				1					1							용접1
18	을지로15길	1.6	12.2	2.5			2				2					4	1						정밀2
19	을지로15길	3.5	28.1	2	3										3	5					1		광택2
20	을지로15길	2.7	28.6	1	4	1	1						1		5	10	1						정밀6
21	을지로15길	3.7	50.3	1.77	2	2	2				1				5	15	4		1	1			정밀7,프레스5
22	을지로17길	3.8	48.2	3.88	2		2	2			4				2	2	6	4	2				전기5,볼트3
23	청계천로	14.5	86.9	5.5			2	1			3							8	2	3	2		전업사5,공구2
BLOCK3 산림동																							
24	을지로19길	9.4	25.0	1.5	3			1			1				3	5	2			3	1		프레스2,정밀2
25	을지로19길	1.3	49.1	1	3					1		1			3	2	2					2	펌프2,스튜디오1
26	청계천로	2.1	52.2	1	3	1	1						1		4	5	8					1	펌프7,주물1
27	-	0.8	28.5	2.33		2									2								
28	창경궁로5다길	5.1	50.4	2	2		1	1	1		2		1		2	3	2	3				1	볼트2,종교1
29	창경궁로5가길	4.9	35.6	4.4	1		2		1		2		1		1	1	2	4		1			상사4
30	창경궁로5가길	5.1	53.3	2.87	1		1	7			6		1	1	1	3	6			2	2	4	기계3,케이블2
31	창경궁로5가길	4.5	26.1	2.25	2	1									3	2	2					3	봉제2,스튜디오1
32	창경궁로5가길	5.1	33.0	3		3	3				3		3				3			1		3	봉제3,봉제부품1
33	창경궁로7길	3.1	23.9	2		1	2						3			2						2	봉제2,봉제기계2
34	창경궁로7길	2.1	54.1	1.5	4	2	2						1		7	12							조각2,주물2,광택2
35	창경궁로5나길	3.6	16.4	1.25	3										3	5					2	1	주물3,금속2
36	창경궁로5다길	2.2	38.1	1.33	2	1	1						1		3	2	1			3			부품3
37	창경궁로5다길	3.2	41.2	1.44			3	1					2		2	10				1			금속6
38	창경궁로5길	4.9	15.5	2.16		3	3				1		2	1	2	13					1		금속제작5,절단4
39	을지로	3.5	34.8	1.8		2	1	1					3		1			2			1	1	조명1,간판1
40	을지로	30.1	29.3	2		2		1			1		2					1		1	3	1	조명2,인테리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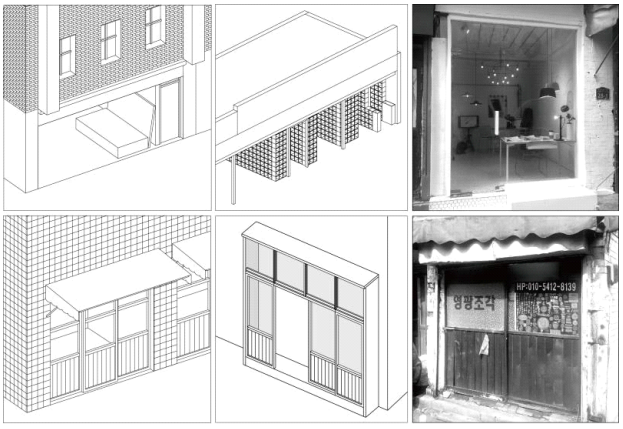
(2) 입면구성요소

입면구성요소는 업종별 특성에 따른 개방도를 갖는다. 입면구성요소는 시각적인 개방도에 따라 크게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입면구성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입면구성요소

입면구성요소	개방형	개방형
		수납형
		유리형
	폐쇄형	평면형
		전시형
		입체형

개방형은 시각적, 물리적으로 완전히 개방된 개방형, 판매·제작 물품을 선반 또는 입면으로 구성한 수납형과 판매물품을 외부에서도 잘 보이도록 한 유리형이 있다. 폐쇄형은 일반적인 철문으로 닫힌 평면형, 판매·제작 물품을 입면에 직접적으로 붙이는 전시형, 입면이 돌출된 입체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 입면구성요소: 왼쪽 첫 번째부터 시계방향으로 개방형, 수납형, 유리형, 전시형, 입체형, 평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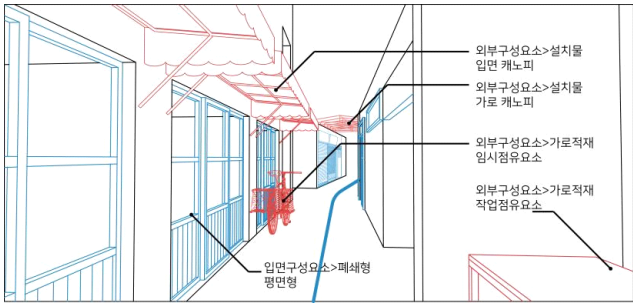
(3) 외부구성요소

외부구성요소는 건물외부 가로를 점유하는 요소를 말한다. 외부구성요소는 크게 설치물과 가로적재로 나눠진다. 외부구성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외부구성요소

외부구성요소	설치물	가로캐노피
		입면캐노피
	가로적재	임시점유형
		반고정점유형
		작업점유형

설치물은 가로 자체를 덮는 가로캐노피와 건물의 1층 입면을 덮는 입면캐노피로 나눠진다. 가로적재는 자전거, 수레와 같은 임시적재요소, 업체에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물품을 항시 적재해놓는 반고정점유형과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점유형으로 나눠진다. 이를 도식화하여 <그림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외부구성요소

4.5 '을지유람' 관람공간의 특성

본 연구는 관람이 되는 공간에 대한 공간적인 차원의 분석이다. 앞서 4.1-4.4까지의 과정은 관람공간을 요소화하여 보다 객관화, 정량화하여 분석하기 위함이다.

<그림 4> '을지유람' 전체 관람동선

'을지유람'에서 관람의 대상은 복합적인 공간경험이다. 앞서 A.Gospodini가 지적했듯이, 관광의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선 공간의 물리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도시구성요소와 산업구성요소는 각각 물리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다. 도시구성요소와 산업구성요소를 병치한 결과, 관람공간의 공간적인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이는 <표9>로 정리되었다. 이를 토대로 도출된 관람공간의 특성은 첫째, 산업 클러스터의 공간적 특성, 둘째, 가로별 공간전환적 특성과 마지막으로, 기능적인 가로의 극단적인 공간 특성이다.

(1) 산업클러스터의 공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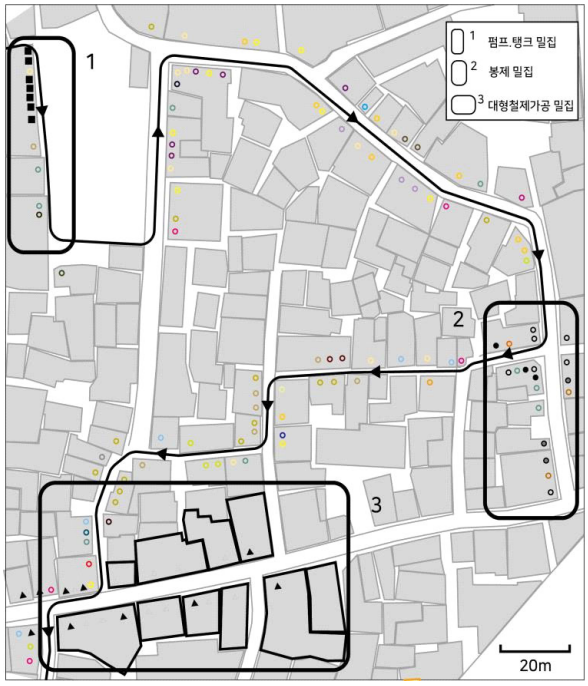
도시구성요소와 산업구성요소를 병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제조업지역의 공간의 질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공간의 질서 하에 업종 특성별로 유사업종이 특정한 가로에 밀집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산업클러스터는 고유한 관람공간 특성을 만들어 낸다. 밀집한 업종은 가로 폭, 건물유형, 건물규모와 1층 입면유형으로 특정한 공간성격을 갖는다. 밀집하는 업종은 타일·도기 판매업, 식당, 공구 및 산업재료 판매업, 정밀·밀링CNC 가공업, 펌프·탱크 제작업, 봉제산업, 철판절단·금속제작업이고 다음 표에서 구체적인

공간특성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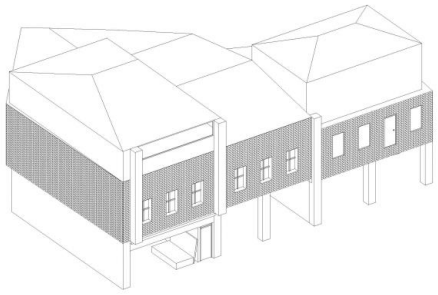
<표 10> 밀집업종 공간특성

밀집업종	가로폭(m)	건물유형	건물 층수	1층입면유형
타일·도기 판매업	14.9-30	1950년대 철근콘크리트	3층-5층	개방형: 유리형
식당	2.8	1930-40년대 목조(한옥)	단층	폐쇄형: 평면형
공구 및 산업재료 판매업	14.5-22.0	1960년대 벽돌구조	2층-4층	개방형: 수납형
정밀·밀링CNC 가공업	2.1-2.7	1940년대 목조 개조	1층-2층	개방형: 평면형
펌프·탱크 제작업	2.1	1940년대 목조 개조	단층	개방형
봉제산업	5.1	1960년대 벽돌구조	3-4층	폐쇄형: 입체형
철판 절단·금속제작업	4.9	1960년대 벽돌구조	2-3층	개방형

철판절단·금속제작업과 정밀·밀링CNC가공업은 철제를 가공하는 제조업으로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두 업종이 밀집하고 있는 환경은 차이점을 보인다. 철판절단·금속제작업은 비교적 넓은 가로 폭에 개방적인 입면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정밀·밀링CNC가공업은 세장한 가로 폭을 갖는 저층 고밀지역에 폐쇄적인 입면구성을 갖는다. 철판절단·금속제작업는 상대적으로 큰 자재를 다루고 작업면적을 크게 필요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층을 전면 개방하여 사용해야한다. 반면 정밀·밀링CNC가공업 상대적으로 작은 제품을 만들고 작업 기계가 작은 등 작업면적이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세장하고 폐쇄적인 가로가 선호되는 작업환경이 될 수 있다.



<그림 5> '을지유람' 산림동의 산업클러스터 공간
각각 1.펌프·탱크 2.봉제 3. 대형 철제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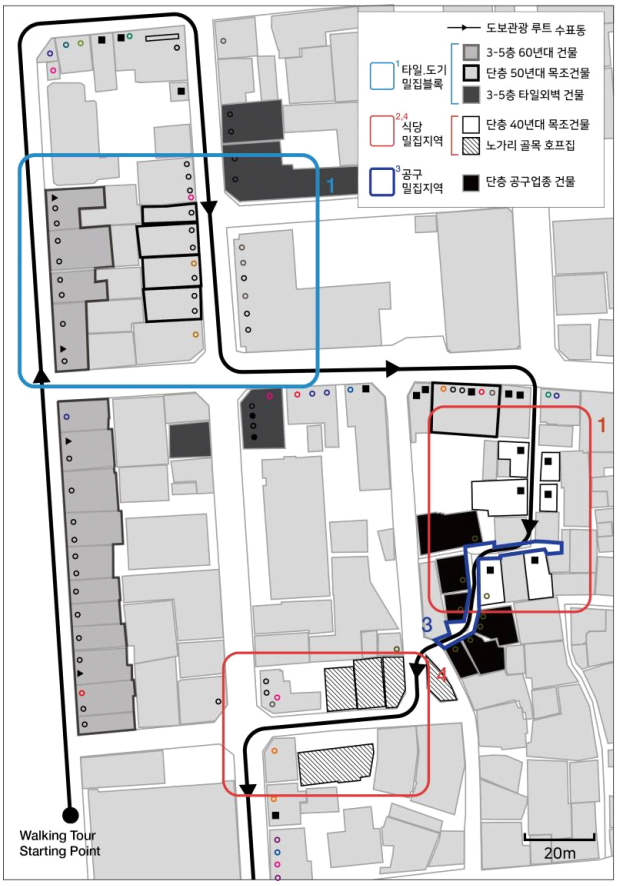


<그림 6> 대형 철제가공 밀집지역의 건물유형

이러한 공간의 구성이 특정한 관람공간을 갖게 된다. 철판절단·금속제작밀집지역의 경우, 개방적인 입면과 큰 활동범위의 작업으로 인하여 가로에서 산업의 과정이 관람의 대상으로 관찰된다. 정밀·밀링CNC가공업밀집지역의 경우 산업의 과정은 감춰지는 대신 세장한 가로, 오래된 입면과 저층고밀의 환경이 관람의 대상이 된다.

(2) 가로별 공간전환적 특성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단위가로는 특정한 공간적 특성을 지닌다. 이어지는 단위가로가 비슷하여 공간적 특성이 연속적일 수 있지만, 단위가로의 공간적 특성이 다르다면, 관람자는 불연속적인 공간경험을 하게 된다.



<그림 7> '을지유람' 수표동의 공간적 성격이 다른 클러스터의 동선상의 연속

따라서, '을지유람'의 관람공간은 관람자에게 불연속적인 공간경험을 하게함으로서 공간의 특성이 급격하게 바뀌는 공간전환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는 을지로 제조업일대가 복잡하고 다양한 공간적 특성의 집합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3) 기능적인 가로의 극단적 공간특성

을지로 제조업지역 일대는 크게 세 블록으로 나눠지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블록 지역인 입정동과 산림동은 상대적으로 기존의 공간조직이 보존되어온 상태이다. 분석한 단위가로 중 세장한 특성을 지닌 여러 가로들은 제조업체들이 작업공간의 연장이나 운송, 휴게 등을 하는 기능정인 가로들이다.

<그림 8> 기능적인 가로의 극단적인 공간

기능적인 가로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로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폭을 지닌 가로나 적재, 작업 등으로 인하여 점유된 가로들은 관람동선에 포함되면서 극단적인 관람 공간특성을 만들어 낸다.

5. 결론

본 연구는 '을지유람'으로 인한 을지로 일대 제조업 밀집지역의 제조업체가 유지되면서 관광상품화되는 현상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을지로의 제조업체는 제조업으로써의 기능을 잃지 않고, 을지로 일대도 제조업 지역으로써의 체계를 잃지 않은 채 그 자체로 관람의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는 도심부 제조업지역이 관람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공간적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중심부의 행정구 지자체들에서 시행중인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공간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나아가, '을지유람'의 관람공간의 구성요소를 도시형태적, 산업특성적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관람공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도시구성요소와 산업구성요소를 종합하여 지역의 형태적 특성을 기능적 특성과 연결하여 공간적 질서를 파악하였다. 관람공간의 특성은 첫째, 업종 특성별로 유사업종이 특정한 가로에 밀집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산업클러스터는 고유한 관람공간 특성을 만들어 낸다. 둘째, 산업의 밀집과 공간적 특성이 단위가로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단위가로별로 전환적인 관람공간 특성을 가진다. 셋째, 기능적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가로가 극단적인 관람공간특성을 형성한다. 각 구별 지자체들에서 기획하는 도보관광 프로그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행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증가되는 비관광적 지역의 관광화에 대한 공간적 분석 도구로써 시사점을 가진다. 또한, 을지로와 같은 도심부의 제조업 지역의 수복형 도시재생과 보존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서도 시사점을 가진다.

참고문헌

1. 강홍빈,박상빈,권혁희,김버들 (2010). 세운상가와 그 이웃들. 서울역사박물관
2. 김선혜 (2015). 도심부 주거지의 소규모 제조업 군집양상: 서울 창신동 봉제산업 지역의 미시적 형태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3. 심한별 (2013). 서울 도심부 도시형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해석,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4. 최동혁 (2005). 서울 남촌지역 가로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5. 김주희,우성호 (2012). 도심지 역사문화환경에서의 도보관광 코스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 39호.
6. 김준연,한영호,오상민 (2011). 도보여행의 관광공간에 관한 사례연구: 종로구 20코스를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6권 4호 통권18호.
7. 서정렬 (2012). '도보관광'을 통한 원도심 문화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51호.
8. 이영란,주범 (2017). 도시 축제에 나타난 가로 문화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 58호.
9. 최동혁 (2008). 서울 도심 인쇄산업지역 가로변 건축물의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9권 제1호.
10. 박소현 (2017). 아이러니 서울길, 다섯 이야기 1:을지로2가.3가, 서울: Space. 통권 592호
11. 반정화,강미선 (2015). 서울시 도보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서울연구원.
12. 정철,이훈,노경국,정란수 (2010).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13. Hutton, T. A (2009). The New Economy of the Inner City. New York: Routledge
14. Gospodini, A (2001). Urban Design, Urban Space Morphology, Urban Tourism: An Emerging New Paradigm Concerning Their Relationship. European Planning Studies 9. 7.

[논문접수 : 2017. 08. 01]
[1차 심사 : 2017. 08. 21]
[게재확정 : 2017. 08. 30]